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¹⁾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 Rearing-Behavior and the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노 현 미*

Roh, Hyun Mee

박 인 전**

Park, In J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 and the competencies of their children and to suggest ways in which fathers can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children. The subjects were the fathers and mothers of 649 six- to seven-year-old children attending schools located in T city.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imit setting"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child rearing behavior by fathers. On the other hand fathers' "reasoning guidance" was correlated with children's personalities and intellectual competencies.

1) 이 논문은 1998년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 (부설) 아동복지상담연구소 연구원

** 영남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I. 서론

유아가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관습상 언제나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친자관계에 대한 초기 심리학적 이론에서도 아버지에게 관한 연구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덜 중요하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인 발달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초기 유아기 발달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시한 Freud와 어머니를 유아 애착에 있어 가장 최초이고 중요한 대상이라고 역설한 Bowlby였다(Parke, 1996).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취업 증대, 가정내에서의 남녀 평등으로 인한 역할의 변화, 가정내 상호작용을 갖는 구성원들의 범위 축소,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내 여교사의 높은 비율로 인한 남성 모델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남성 스스로도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정내에서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하여 새롭게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의 수가 어머니에 비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역할이 결코 미약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버지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와는 매우 다른 유형으로 참여하며

(Bridges, Connell, & Belsky, 1988; MacDonald & Parke, 1984),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의 양은 적을지라도 아버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고 아동의 요구에 대해서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Parke & Tinsley, 1987). 특히 아버지의 신체적 놀이는 모든 변인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졌으며(MacDonald, 1987), 유아의 인지적 능력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기여하지만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자녀의 독립성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감은 자녀의 인지 발달 수준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e, 1986). 또한 애착에 관련하여서도 양친 모두에게 애착된 유아가 편부모에 의해 불안정하게 애착된 유아보다 더욱 사교적이고 낮은 성인과의 상호작용도 잘 한다는 연구(Main & Westone, 1981)나, 유아가 양친에 대해 충분히 애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연구(Dickstein & Parke, 1988; La Rossa, 1988)들은 부모로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외부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영역의 제반 능력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개인차를 보이며 행동적 수행을 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능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White(1959)는 인간의 능력(Competence)을 환경과의 효과적인 즉 유능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적합성(fitness)이나 능력(ability)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충동으로 인한 행동을 통해서는 충분히 획득될 수 없으며, 일정한 방향성, 선택성, 지속성을 지니고 인간의 심리적인 효율성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의어로는 역량(capability), 수용능력(capacity), 유능성(efficiency), 능숙함(proficiency), 기술(skill)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실제의 행위인 수행(performance)과 구별하여 설명한 Sophian(1997)은 능력이란 과업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적인 지식으로 구성되며, 특수한 과업에서 유아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혹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병림(1987)은 환경에 부딪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유효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생활능력¹⁾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유아기 발달 과정내에 이러한 제반 능력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중 인간 능력의 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즉 여러 영역들의 중요성과 그 관련성은 유아에 관한 일부 연구들에서 알 수 있다. Pica(1997)는 유아들의 신체적 움직임과 사회·정서 발달, 창조성, 인지적 영역과의 관련성을 밝혔고, Zigler와 Trikett(1978)은 사회적 능력과 지적 능력간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Sutton과 Rose(1988)는 지적 능력에 관련된 효과적인 주의 전략 사용이 아동의 예술적 능력 중 특히 시각적 현실주의와 관계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역시 다른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아버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 양육의 질적, 양

적 차이점과 유사점에 관한 연구(강영일, 1982; 이병림, 1987; MacDonald & Parke, 1984; Power, 1985), 둘째, 가족체계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룬 연구(이경희, 1993; 이병래, 1990; 이순복, 1993; Hoffman, 1989), 셋째,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김미영, 1985; 김옥엽, 1981; 박성혜, 1991; 이미정, 1986; 이영순, 1988; 장가영, 1989; 최경순, 1992; Wagner & Phillips, 1992)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중 세 번째에 해당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각 능력과 관련하여 수행된 몇몇 국내·외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인성에 대해 연구한 강영일(1982)에 의하면 아버지의 불안형이나 모순형, 또는 불일치형이 아동의 인성 중 낮은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미영(1985)은 유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과는 다르며, 특히 유아는 아버지가 생활습관훈련과 기본적인 훈련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특성이 유아의 능력 중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이영순(1988)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의 경우 유아의 사회성에서 긍정적인 영역과, 아버지의 거부적인 태도의 경우 부정적인 영역과 각각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가영(1989)은 자녀 돌보기를 잘 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에서 규범에 대한 순응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에 따른 아

1)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전반적인 능력을 유아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생활속 전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병림(1987)이 표기한 “생활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해 연구한 최경순(1992)은 아버지의 애정과 자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유능성 및 지도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현순(1993)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와 자녀의 학습흥미간에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아버지의 애정·자율·성취·합리적 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를 보면, MacDonald와 Parke(1984)는 아버지의 신체적 놀이를 통한 양육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교사의 평정에 의한 인기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Russell과 Russell(1987)은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어머니의 일상적인 돌봄이 감소되고 아버지와의 애정적인 관계가 보다 증가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사회화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진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 참여와 상호작용의 효과 및 그 중요성을 강조한 Hoffman(1989)은 양부모 가족내 취업모에 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증가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Wagner와 Phillips(1992)는 아동의 학업 능력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고, 특히 아버지의 온정과 일관성있게 긍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이상의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양육과는 분명히 다를 뿐 아니라 양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에 관한 연구는 부모 모두나 어머니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유아들의 전반적 생활능력을 다룬 연구 또한 매우 드문 편이며 유아의 생활능력을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같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어머니와의 비교선상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유아의 전반적 생활능력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아버지와 유아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유아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속의 전반적인 능력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은 상호 관련이 있는가?
3. 아버지의 양육행동군과 유아의 생활능력군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3-1. 유아의 생활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아버지 양육행동요인은 무엇인가?
 - 3-2.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유아의 생활능력 요인은 무엇인가?
 - 3-3. 유아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기여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6·7세 유아 649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생활능력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연령의 유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주된 이유는 학령기 바로 전의 만 5세 유아들이 그 이전의 어린 유아들보다 신체적·지적·사회적·정서적으로 보다 확연히 발달한다는 연구(Dodson, 1995)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능력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Selman & Byrne, 1974; Kurdek & Rodgan, 1975; 한성희, 1985; 이영순, 1988), 그리고 이전에 Piaget는 외부세계와 관련된 도덕성이 7·8세 이후에 발달한다고 하였으나 국내의 장가영(1991)의 연구에서는 5세 정도면 발달한다는 주장들을 그 토대로 한다. 특히 이 연령은 3·4세에 비해 신체의 통제력, 물건을 다루는 능력, 언어 능력 등이 증가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 가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연구(박범실, 1987)를 바탕으로 생활능력과 관련하여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에 관한 질문지로서 모든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항상 그렇다'를 5

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였다.

1)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

아버지의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Pease 등 (1979)의 IPBI(Father form)[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Father form)]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모두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① 양육에의 참여(Parental involvement):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 ② 제한 설정(Limit setting): 자녀의 생활에 일정한 제한을 지시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이다.
- ③ 반응성(Responsiveness): 자녀가 필요로 하면 아버지의 하던 일을 중지해서라도 반응해주는 행동으로 암시적인 요구에 대한 반응도 포함한다.
- ④ 합리적 지도(Reasoning guidance): 자녀에게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해 주고 함께 생각해 보는 행동이다.
- ⑤ 친밀감(Intimacy):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값인 Cronbach' α 값은 하위영역의 경우 .61에서 .80으로, 전체 값의 경우 .88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생활능력 척도

유아의 생활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아동발

달 이론과 Park(1981)의 IPACI(Form A)[Iowa Parent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encies Instrument(Form A)]의 문항을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이미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이병림(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6개의 하위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체 및 운동 능력: 신체적 균형, 협응, 유연성, 생기, 또는 활력과 운동 능력으로써 속도, 체력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 ② 지적 능력: 인지 능력으로써 정확한 기억력, 빠른 학습력, 지적 민첩성, 지적 관심, 명확한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 ③ 책임수행 능력: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성, 주의깊은 조심성, 자발성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 ④ 사회적 능력: 부모나 타인, 친구에 대한 애정적 표현력, 협력성, 사려성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 ⑤ 예술적 능력: 예능에의 관심, 소질, 재주으로써 미술적 능력, 음악적 능력 등을 포함한다.

⑥ 인성: 자신감, 안정성, 관용성, 침착성, 대범성, 명량성 등 성격적 특성을 포함한다.

유아의 생활능력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하위 영역은 Cronbach's α 계수가 .76부터 .91로 나타났으며, 전체 값은 .9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예비조사(1998년 2월에서 3월)와 본 조사인 두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는 '98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총 1000부를 배포하여 73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편부모 가정으로 인한 설문대상자의 부재와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시키고 649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Program과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분석, 정준상관관계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등으로 통계처리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생활능력의 일반적 경향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제한 설정(3.8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합리적인 지도(3.76)인 것으로 나

타났고 양육에의 참여(3.2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버지들은 6~7세의 자녀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은 많이 하는 반면, 양육에의 참여 즉 자녀의 활동에 참여하고 과업을 잘 수행해 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생활능력 중에는 인성(3.61)과 사회적 능력(3.60)이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수행 능력(3.3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의 상관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 영역과 유아의 생활능력 하위 영역의 상관관계 값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에서 양육에의 참여는 유아의 생활능력 중 인성(.31), 책임수행 능력(.30), 지적 능력(.29) 등의 순으로 상관이 높았고, 제한 설정에

서는 사회적 능력(.28)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상관이 높은 편이었다. 합리적인 지도는 유아의 인성(.35)을 비롯해 지적 능력(.33), 책임수행 능력(.30) 및 사회적 능력(.30) 등의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밀감은 다른 영역에 비해 유아의 인성(.32)과 비교적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전체와 유아의 생활능력 중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영역은 인성(.38)이었고, 그 다음이 지적 능력(.34) 및 사회적 능력(.34) 등의 순이었다. 유아의 생활능력 전체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하위 영역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지도(.37), 양육에의 참여(.34), 그리고 친밀감(.32) 등의 순으로 상관이 높았으며, 양육행동 전체와 생활능력 전체의 상관계수는 .42로 나타났다.

<표 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생활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하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양육에의 참여	3.26	.58	신체 및 운동 능력	3.42	.50
제한 설정	3.81	.48	지적 능력	3.47	.53
반응성	3.66	.63	책임수행 능력	3.31	.58
합리적인 지도	3.76	.47	사회적 능력	3.60	.48
친밀감	3.68	.71	예술적 능력	3.52	.54
			인성	3.61	.46
양육행동 전체	3.74	.42	생활능력 전체	3.50	.41

<표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상관관계

생활능력 \ 양육행동	양육에의 참여	제한 설정	반응성	합리적인 지도	친밀감	양육행동 전체
신체 및 운동 능력	.18**	.23**	.19**	.22**	.15**	.27**
지적 능력	.29**	.17**	.19**	.33**	.26**	.34**
책임수행 능력	.30**	.12**	.18**	.30**	.25**	.32**
사회적 능력	.27**	.28**	.18**	.30**	.24**	.34**
예술적 능력	.25**	.16**	.17**	.21**	.25**	.28**
인성	.31**	.21**	.22**	.35**	.32**	.38**
생활능력 전체	.34**	.25**	.25**	.37**	.32**	.42**

** $p < .01$

3. 아버지의 양육행동군과 유아의 생활능력군과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과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즉 유아의 생활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유아의 생활능력은 무엇이며, 유아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기여 양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군을 예측변수군으로, 유아의 생활능력군을 평가변수군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3>~<표 6> 참조).

먼저 독립변수의 선형조합과 종속변수의 선형조합 사이에서 정준변량함수를 도출하였는데,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정준변량함수($p<.001$)와 제2정준변량함수($p<.001$)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

<표 3> 아버지 양육행동 변인군과 유아 생활능력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변량함수	Canonical R	정준근	비율	고유치	F값	자유도
제 1 정준함수	.446	.199	.707	.248	5.589***	30
제 2 정준함수	.225	.051	.152	.053	2.559***	20
제 3 정준함수	.174	.030	.089	.031	2.057	12
제 4 정준함수	.111	.012	.036	.012	1.514	6
제 5 정준함수	.075	.006	.016	.006	1.425	2

*** $p<.001$

<표 4>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변 수	제 1 정준변량함수				제 2 정준변량함수			
	W	L	L ²	% Σ L ²	W	L	L ²	% Σ L ²
예측변수군								
양육에의 참여	.256	.754	.569	.228	-.208	-.116	.013	.019
제한 설정	.207	.567	.321	.129	.953	.716	.513	.768
반응성	-.040	.522	.272	.109	.536	.332	.110	.167
합리적인 지도	.445	.872	.760	.305	-.676	-.160	.026	.039
친밀감	.407	.754	.569	.228	-.098	-.079	.006	.009
양육행동 전체			2.491	1			.668	1
평가변수군								
신체 및 운동 능력	.040	.574	.329	.090	.807	.642	.412	.645
지적 능력	.247	.834	.696	.190	-.503	-.139	.019	.030
책임수행 능력	.192	.793	.629	.172	-.470	-.257	.066	.103
사회적 능력	.174	.824	.679	.186	.614	.283	.080	.125
예술적 능력	.038	.661	.437	.120	.471	.248	.062	.097
인성	.480	.941	.885	.242	-.519	-.001	.000	.000
생활능력 전체			3.655	1			.639	1

미한 것으로 나타난 2개의 정준변량함수에 대해 <표 4>에서는 각각 정준가중치(canonical weight)와 정준적재치(canonical loading), 정준적재치의 자승값(L²), 각 변인의 L²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²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 ΣL^2 을 제시하였다.

두 정준함수 중 먼저 제1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행동의 정준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합리적인 지도(.445)로 군내 변량의 약 30.5%를 설명하였고, 친밀감(.407)은 22.8% 정도로 설명되었다. 유아의 생활능력의 정준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인성(.480)으로 군내 변량의 24.2%를 설명하였으며, 지적 능력(.247)은 19%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가 유아의 생활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생활능력 중에서도 특히 인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정준변량함수는 첫 번째 도출된 정준변량함수쌍과는 독립적으로 잔여변량을 최대로 설명하는 정준변량함수이다. 이러한 제2정준변량함수의 정준가중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수군의 경우에는 제한 설정(.953)이, 평가변수군의 경우는 신체 및 운동 능력(.807)이 가중치가 높았으며, 각각의 군내 변량의 비율은 76.8%와

64.5%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제한 설정이 유아의 생활능력을 잘 예측해 주며 그 중 특히 신체 및 운동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는 유아의 인성을 예측해 주며 이를 제외했을 경우 제한 설정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 능력을 예측해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예측변수군인 아버지 양육행동 변인군이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평가변수군인 유아의 생활능력 변인군이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준상관 즉 교차상관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유아의 생활능력의 교차상관에서 가장 예측력이 강한 예측변수는 제1정준상관의 경우 합리적인 지도(.151), 양육에의 참여(.113)와 친밀감(.1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2정준상관에서도 역시 합리적인 지도(.153), 양육에의 참여(.114), 친밀감(.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유아의 생활능력 요인은 제1정준상관에서 인성(.176)이었으며, 그 다음이 지적 능력(.138), 사회적 능력(.135)의 순이었다.

제2정준상관에서도 제1정준상관과 유사하였는데, 인성(.176)이 가장 높은 적재치를 지니고

<표 5> 정준평가변수군과 정준예측변수군간의 교차상관계수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제 1정준	제 2정준		제 1정준	제 2정준
양육에의 참여	.113	.114	신체 및 운동 능력	.066	.086
제한 설정	.064	.090	지적 능력	.138	.139
반응성	.054	.060	책임수행 능력	.125	.128
합리적인 지도	.151	.153	사회적 능력	.135	.139
친밀감	.113	.113	예술적 능력	.087	.090
			인성	.176	.176

있었으며, 그 다음이 지적 능력(.139)과 사회적 능력(.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의 생활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인은 합리적인 지도이고, 이러한 양육행동 변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어지는 유아의 생활능력 변인은 인성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인군과 종속변인군간의 공유변량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정준중복지수 (canonical redundancy index)²⁾를 산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 이 두 변수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앞의 결과에서 이미 명시화된 사실이므로 여기에서는 두 변수들간의 관계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수군의 제1정준함수 중복지수는 .099, 제2정준함수 중복지수는 .007로 합계는 .106이 된다. 다시 말해 예측변수군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인군은 평가변수군인 유아의 생활능력 변인군을 예측하는데 약 10.6%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6>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의 정준중복지수

변 인	Canonical R	R ²	중복지수	중복지수비율
예측변수군				
1	.446***	.199	.099	.934
2	.225***	.051	.007	.066
			.106	1
평가변수군				
1	.446***	.199	.121	.960
2	.225***	.054	.005	.040
			.126	1

***p<.001

IV. 논의 및 결론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관심을 끌어 온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부모역할에 대한 문화적인 관념과 기대로 인해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는 언제나 2차적인 존재로만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80년

대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아버지됨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직도 자녀양육에 별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2) 중복지수는 다른 변수군과의 선형결합에 의해 설명되는 또 다른 변수군의 공통변량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중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와 유사한데, 이를 평균화시킨 값이다.

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McBride & Rane, 1998).

유아기 발달에 대한 연구의 경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 등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오늘날에는 어느 특정 영역만의 발달보다 모든 영역의 발달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유아의 양육 및 교육에서도 전인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연구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관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전반적인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는 양육행동의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양육에의 참여'를 가장 적게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적용시켜 가는 '제한 설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유아가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과 다르게 지각하며 아버지는 생활 습관 훈련과 기본적인 훈련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발견한 김미영(1985)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Brandth와 Kvande (1998)는 이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마치 친구처럼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동서양의 연구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지는데, 우리 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 수직적 혹은 종적인 관계의 성격이 강하여 친구처럼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서양의 아버지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우리 나라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어서는 다른 양육행동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고 부족함을 나타냄으로써, 자녀와 함께 있는 동안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유아기 자녀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아가 그 활동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생활능력은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는데, 생활능력 전체 중 자신감, 안정성, 관용성, 침착성, 대범성, 명랑성 등 성격적인 특성인 인성과 타인에 대한 애정적 표현력, 협력성, 사려성, 타인과 잘 어울리는 쾌활성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지각되었다. 다음으로 예술적 능력, 지적 능력, 신체 및 운동 능력의 순이었으며 책임수행 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지적, 신체 및 운동 능력, 책임수행 능력이 생활능력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유아기 자녀의 능력을 그 시기 발달 단계나 수준에 맞추어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관찰할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지적 능력에 대해 어머니들의 높은 기대 및 욕구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아직 균형이 잡히거나 민첩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지각으로는 그 연령에 맞추어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실제로 신체 및 운동 능력의 경우 오늘날의 유아들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신체 활동량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가정내 컴퓨터나

전자게임기, 텔레비전이나 다른 영상매체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인해 아동들이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외놀이 환경의 부족으로 인해 전신을 움직이는 놀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신체 및 운동 능력 발달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책임수행 능력도 연령상 유아의 그러한 능력을 어머니가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나, 실제 요즘 아동들이 지구력이나 인내심, 책임감 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은 대체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인 지도가 유아의 생활능력과 비교적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유아의 인성과 지적인 능력에서 그러하였다. 이는 유아의 인성에 대해 연구한 강영일(1982)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불안형이나 모순형, 또는 불일치형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성 중 낮은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과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Wagner와 Phillips(1992)의 연구에서 아동의 학업적인 능력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다고 한 점과, 김현순(1993)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방법이 자녀의 학습흥미 및 학업성취와 관련성이 있다고 한 점 역시 부분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다음으로 유아의 생활능력과 상관성이 높은 것은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에는 질 못지 않게 양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군과 유아의 생활능력의 하위 변인군간의 정준상관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생활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의 생활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요인은 합리적인 지도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해 주고 함께 생각해 보는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유아의 생활능력은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유아의 생활능력 변인은 인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가 유아의 인성을 가장 잘 예측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수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아울러 함께 생각해 보는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긍정적인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사회성이나 인성 발달에 있어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통념을 깨고, 특히 남아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밝힌 Lamb과 그의 동료들(1976)에 의한 연구(이재연·김경희, 1989, 재인용)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인 지도의 인성에 대한 설명력을 제외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제한 설정이 유아의 생활능력 중 신체 및 운동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신체적 균형, 협응, 유연성, 생기 또는 활력과 운동능력으로써 속도, 체력 등을 포함하는 능력은 자녀의 생활에 일정한 제한을 지시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인 제한 설정에 의해 잘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유아는 한계를 분명히 제공받았을 때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있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군은 유아의 생활능력군을 약 10.6%로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양적인 양육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양육에의 참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생활능력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양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장려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지해 주는 강력한 요소로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아버지의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Mackey, 1998). 또한 어머니의 기대 및 행동 등이 아버지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Doherty, Kouneski, & Erickson, 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와 지원 및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가족 차원에서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다각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원을 동반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부모 휴가 중 하나인 신생아 양호 휴가(Parental leave)를 통한 사회적인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들은 자녀 출산시 평상시 봉급의 90% 수준에 이르는 2주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과 관

련해서 직장을 잠시 쉴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제도는 어머니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버지가 나머지 다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와 같은 발상과 인식조차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을 양육하는 일은 결코 개별적인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며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며 책임을 분담해 주어야 하는 과업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시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제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의 인성발달이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있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로는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결과 전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로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 생활 전반의 능력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이렇게 서로 상당히 다른 특성의 유아발달 영역 모두를 어머니가 과연 객관성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 생활능력 하위영역들간 상관관계 양상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이 지닌 한계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는 그 하위 영역별 문항들이 양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그리고 유아의 생활능력 척도는 아직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하여 다각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버지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일(198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인성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1985). 아버지 역할과 유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엽(1981).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1993). 부모의 양육방법과 학습흥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1987).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199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1986).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1990). 양육태도와 부모·아동의 특성 및 가정 환경 변인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립(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복(199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김경희(1989). 부모 교육. 서울: 양서원. pp.70-71.
- 장가영(198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수행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andth, B., & Kvande, E.(1998). Masculinity and Child Care: The Reconstruction of Fathering. *The Social Review*, 46, 2, p.293(21).
- Bridge, L. J., Connell, J. P., & Belsky, J.(198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Inter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A Component Proces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100.
- Dickstein, S., & Parke, R. D.(1988). Social Referencing in Infancy: A Glance at Fathers and Marriage. *Child Development*, 59, 506-511.
- Dodson, F.(1995). *How to Father*(이원호 역). 서울: 양서원. pp.68-70.
- Doherty, W. J., Kouneski, E. F., & Erickson, M. F.

- (1998). Responsible Fathering: An Over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 p.227(16).
- Hoffman, L. W.(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Kurdek, L. A., & Rodgan, M. M.(1975).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th-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43-650.
- La Rossa, R.(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ren Development*, 55, 1265-1277.
- MacDonald, K.(1987). Parent-Child Physical with Rejected, Neglected, and Popular Boy. *Child Development*, 23, 705-711.
- Mackey, W. C.(1998). Father Presence: An Enhancement of a Child's Well-Being. *The Journal of Men's Studies*, 6, 2, p.227(17).
- Main, M., & Westone, D. R.(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cBride, B. A., & Rane, T. R.(1998). Parenting Alliance As a Predictor of Father Involvement: An Exploratory Study. *Family Relations*, 47, 3, p.229(8).
- Park, C. S.(1981).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Competenc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Parke, R. D.(1986). *Fathers*(황응연·장휘숙 역). 서울: 창지사. pp.66-68. p.108.
- Parke, R. D.(1996). Fatherhood: Myths and Realities. In R. D. Parke(Ed.), *Fatherhood*.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 Tinsley, B. J.(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ease, D., Clack, S. G., & Crase, S. J.(1979).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Pica, R.(1997). Beyond Physical Development: Why Young Children Need to Move. *Young Children*, 52, 6, 4-11.
- Power, T. G.(1985). Mother- and Father-Infant Play: A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6, 4-11.
- Russell, G., & Russell, A.(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5.
- Selman, R. L., & Byrne, D. F.(1974). A Structural-Developmental Analysis of Level of Taking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5, 803-806.
- Sophian, C.(1997). Beyond Competence: The Significance of Performance for Conceptu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12, 281-303.
- Sutton, P. J., & Rose, D. H.(1998). The Role of Strategic Visual Attention in Children's Drawing Develop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8, 2, 87-107.
- Wagner, B. M., & Phillips, D. A.(1992). Beyond Beliefs: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Children's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3, 1380-1391.
- White, R. W.(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Zigler, E., & Trikett, P. K.(1978). I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 788-789.